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학교 미술 교과서 분석 및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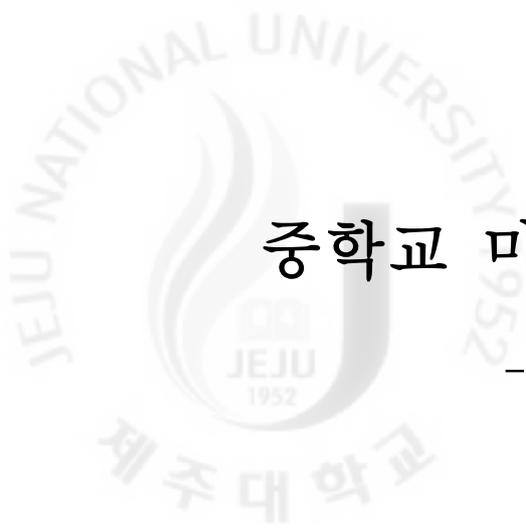
- 도예 영역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좌 유 경

2012년 2월



중학교 미술 교과서 분석 및 연구

- 도예 영역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강 민 석

좌 유 경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2월

좌유경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년 2월

Analysis and Study of Art Textbooks
in Middle School
- Mainly in the Pottery Area -

Yoo-Kyoung Jwa

(Supervised by professor Min-Seok K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2.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in-Suk Kang, Prof. of Art Education

Date

Department of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중학교 미술 교과서 분석 및 연구

- 도예 영역을 중심으로 -

좌 유 경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강 민 석

한국의 과거 성장은 ‘모방형 인적 자본’이 주도 하였으나 현대의 성장 동력은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창조적 인적 자본’으로 변환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이 요구되는 시대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 목적과 방식도 창의성의 표현과 통합적인 사고의 수업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위한 전인교육의 모습에서 지나친 경쟁 위주의 입시를 위한 학습구조로 인해 학생들의 개인주의, 인간소외 현상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미술교육은 창의성과 성취감,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며 자유로운 표현 활동을 통한 타인과의 새로운 소통 방법을 모색케 하여 전인적 인격형성에 도움이 된다. 또한, 정서적·사회적으로 불완전한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미술교육은 자신의 개인적인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게 하여 내면의 무의식과 내재된 감정들을 표출함으로써 정서적 안정 및 표현력,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고 건강하고 성숙된 인격형성에 도움을 준다.

특히, 도예 교육은 자연과 밀접한 흙을 주재료로 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친밀감을 향상시켜주며 쉽게 변형되는 흙의 특성을 통해 성취감과 창의성,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며, 아울러 미적 정서와 스스로 창작할 수 있는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불어 흙을 이용한 표현의 전 과정을 수행 하면서 학생들의 사고 능력을 확장시켜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우리의 전통 문화를 배우고 전통미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므로 교육적 가치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이 도예 교육이 교육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시위주의 현 교육과정에서 미술 교과목의 시수가 적어지게 되고 장소와 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도예 교육의 현황과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서 도예 영역의 구성 비율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예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보는데 그 의의를 두었으며,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도예의 이해, 내용, 중요성에 대한 문헌 고찰 및 제7차 개정 미술과 중학교 미술 교과서 총 9종을 토대로 도예 교육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예 교육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교과서 분석 결과, 적극적이고 활성화된 도예 수업을 위한 제언으로서 첫째, 전통문화와 예술로서 도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업 내용을 선정, 조직해야 한다. 대부분의 미술 교과 내용은 평면 영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평면 중심의 미술 수업에서 벗어나 도예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양식의 미술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미술 교과서 편성으로 볼 때 도예 영역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었으며 도예의 이론을 학습하는 단원역시 미술사를 위한 참고 작품정도로 제시되었다.

둘째, 미술과 수업시수를 주당 두 시간으로 환원하여 적정 수업시수의 확보가 필요하다. 정해진 주제와 영역을 더 넓히고 풍부한 상상력과 표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수업 시수의 부족으로 도예의 제작과정 모두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이 현 교육현장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충분한 과정에 따른 이해를 위해서 충분한 수업시수가 필요하다.

셋째, 도예에 필요한 가마설치 등 학습교구를 확보 및 교사들에게 도예 영역 지도에 대한 연수 및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전통문화, 예술로서의 도예를 계승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민속의 정체성 또한 깨닫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공예지도와 교육을 통해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 형성과 내면의 감정치유도 더불어 이루어져 건강하고 성숙한 인격을 지닌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목 차

국문초록	i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II. 도예 교육의 일반적 고찰	3
1. 도예 교육의 이해	3
2. 도예 교육의 내용	15
3. 도예 교육의 중요성	27
III. 중학교 도예 교육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29
1. 중학교 미술교육의 현황	29
2. 중학교 미술 교과서의 도예 영역 분석	32
3. 중학교 미술 교과의 도예 교육의 개선 방안	42
IV. 결론	45
참고문헌	47
Abstract	49

표 목 차

<표-1> 대단원 학습 계획	18
<표-2> 소단원 학습 계획	19
<표-3>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 1	21
<표-4>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 2	22
<표-5>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 3	23
<표-6> 수행평가 기준안	24
<표-7> 중학교 1, 2, 3학년의 영역에 따른 미술 교과 내용 체계	31
<표-8> 제7차 개정 중학교 미술 교과서 분류	32
<표-9> 중학교 미술 교과서 단원으로 본 도예 영역의 비중 분석	33
<표-10> 중학교 미술 교과서 도예 관련 학습 내용	35
<표-11> 중학교 미술 교과서의 도예 제작과정에 따른 분류	38
<표-12> 중학교 미술 교과서의 도예 성형과정에 따른 분류	39
<표-13> 중학교 미술 교과서의 도예 종류에 따른 분류	41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미술은 “삶의 의미와 경험을 살려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의 한 영역이며, 동시에 미술을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언어적 기능과 미술 문화를 통하여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철학적인 기능”¹⁾을 가진다. 따라서 정서적 · 사회적으로 불완전한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미술교육은 자신의 개인적인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게 하며 내면의 다양한 감정들을 표출함으로써 정서적 안정 및 표현력,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 건강하고 성숙된 인격을 형성하여 원활한 사회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미술 교과 내용 영역은 미적 체험, 표현, 감상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표현 영역은 주제,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과정, 표현의 확장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주도적으로 나타내는 영역이다.”²⁾ 이러한 표현 영역 중 도예 교육은 자연의 일부인 흙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체를 손쉽게 만들 수 있으며 유일하게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과 완성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교과과정에서 흙을 사용하여 풍부한 발상의 표현 의도를 구체화하고, 적절한 방법과 과정을 계획하며, 계획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작품제작 과정은 학생들의 통합적인 사고와 인격, 정서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도예 교육은 우리의 전통 문화와 예술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고 되고 전통미를 계승 ·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므로 교육적 가치로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미술교육에서 도예 영역의 포괄적인 의미와 다양한 제작과정을 교육하면서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알리기 위하여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도예 영역의 참고작품을 여러 관점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지도 방향과 시사점을 주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교육인적자원부(2007), 「미술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 p.2.

2) 위의 책, p.2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도예 영역을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도예 관련서적과 연구물 등 문헌을 통하여 중학교 미술 교과서의 도예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고찰하고, 현재 교육 과정을 반영하고 현행 교수방법을 나타내고 있는 제7차 개정 중학교 미술 교과서 9종을 중심으로 도예 교육 내용과 작품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중학교 미술교육에서 효과적인 도예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자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미술교육에 있어서 전통미술교육의 한 분야인 도자 공예의 개념과 종류 및 성형 방법, 도자기의 역사를 고찰한다.

둘째, 도자 공예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을 통해 ‘표현’ 영역의 실습수업을 실시한다.

셋째, 중학교 미술교육에서 ‘표현’ 영역에 속하는 도자 공예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고찰한다.

넷째, 제 7차 개정 미술 교과 내용 분석을 통해 도자 공예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연구, 분석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예 관련서적과 연구물 등 문헌을 통하여 중학교 미술 교과서의 도예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고찰하여 분석한다.

둘째, 본 연구자의 도자 공예 교수·학습 과정안을 기초로 ‘표현’ 영역의 실습수업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제7차 개정 중학교 미술 교과서 9종을 중심으로 도예 교육 내용과 작품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넷째, 중학교 미술교육에서 효과적인 도예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II. 도예 교육의 일반적 고찰

1. 도예 교육의 이해

“인간의 삶 속에서 미술이 왜 존재하며, 왜 필요한가 하는 물음들은 인생이 무엇이며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하는 물음처럼 들릴 수도 있으나 미술의 존재는 인간이 감정을 지녔으며 이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단순한 속성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³⁾

미술은 정해진 하나의 가치나 내용을 주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감정, 느낌 등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감상하는 것이므로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성적인 자아가 반영된다. 이렇듯 미술은 그 작가의 미적 감각의 반영뿐 아니라 그 작가의 내면세계까지 반영되는 것이다.

도예 교육은 사고하고 인식하는 내용과 시각으로 깨닫는 것을 포함하는 모든 내용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상상하여 표현하는 총체적인 것들의 반영이다. 또한 창의성을 키워 주제의 특징을 살려 상징적인 부분을 효과적으로 나타 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 창의적인 토대를 마련하도록 한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같이하는 생활 도예인 공예적인 도자에서부터 순수 미술적인 도자 조각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예 작품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활동을 말한다. 즉, 흙이라고 하는 재료로 만들어 내는 도예의 전반적인 과정을 배우고 가르치는 활동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창의적 사고와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는 도예 교육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예 교육의 개념 및 특징, 도예의 제작 과정과 성형 기법에 따른 다양한 도예의 종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김정(1998), 「미술 교육학 원론」, 예경, p.276

1) 도예의 개념

본 연구에서 도예(陶藝)란 도자기를 가공한 공예품이나 이를 가공 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도자기 공예(陶瓷器工藝) 또는 도자공예(陶瓷工藝)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인류는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에 흙을 불에 구우면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이치를 터득했으며, 이때 흙으로 만든 날그릇을 화덕에 구워서 만든 토기가 등장하였고, 이러한 토기의 발명은 인류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인류문화와 문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인류가 불을 발견하기 이전에는 점토를 성형하여 건조한 그대로 사용하던 시대도 있었으나 불을 발견한 이후부터는 불에 구우면 더욱 단단하고 물속에 오랜 시간 두어도 붕괴되지 않으며 소성 중 기물에 재가 붙어 녹은 부분은 광택을 띠게 됨을 알게 됨으로써 석기, 도기, 또는 오늘날의 자기의 토대를 이루게 된 것이다.

도자기란 “영문으로 pottery 또는 porcelan으로서 라틴어인 poterium(Drinkig Vessel)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히 용기라는 의미로는 Ware를 사용한다.”⁴⁾ 도자기(陶磁器)의 뜻을 풀어 본다면 ‘언덕 가마에서 구워 만든다.’는 뜻이다.

도자기는 “무기질 원료를 단미(單味), 또는 혼합하여 인공적으로 성형한 후에 가열함으로써 경화시켜 만든 제품으로 토기, 도기, 자기를 말한다.”⁵⁾

역사적으로 도자기는 오래된 예술품이며 최초의 용기는 땅에서 파낸 거친 흙을 손으로 형태를 빚은 후 햇빛과 바람에 건조시켜 만든 것이다. 문자도 없고 문학도 없었으며 종교조차 없었던 시기였지만, 인간은 도자예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제작된 용기들은 표현적인 형태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불의 발견으로 사람들은 도자기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물레의 발명으로 도공들은 형태와 더불어 리듬과 운동감의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예술영역으로 확대되어 추상적인 예술의 도예 영역을 확립하게 되었다.

4) 김병익(1998), 「도자공예」, 일지사, p.244.

5) 송재선(2003), 「우리 나라 도자기와 가마터」, 동문선, p.15.

2) 도예의 특징

도예 공예란 “도기(陶器)와 자기(瓷器)를 총괄하여 흙으로 만들어 구워진 예술성이 있는 작품 또는 그 예술행위”⁶⁾라 말할 수 있다. 흔히 흙과 불의 예술이라고 일컬어지며 그 재료인 흙은 그 자체만으로도 원초적인 생명력을 재료가 지니고 있으며 내구성과 상징성으로 인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존재로 사랑을 받아왔으며 그 재료가 오로지 흙만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양하고 독특한 표현을 가능케 한다.

이처럼 도예 공예에서 중요한 재료가 되는 점토의 성질은 가소성, 내화성, 수축성, 변질성, 촉감성, 정신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가소성은 형태를 자유롭게 변형 또는 수정할 수 있는 성질”⁷⁾을 말하며, 이에 따라 학습자가 원하는 형태로 완성될 때까지 쉽게 수정 할 수 있다.

두 번째, 내화성은 점토의 종류에 따라 그 차이가 나게 되는데, 높은 온도에서 잘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내화성의 성질은 도자기가 발달 할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수축성은 작품을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점토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작품의 크기가 수축되는 현상”⁸⁾을 말한다. 점토의 종류에 따라 수축되는 정도가 차이가 나며, 섬세한 작업을 할 때에는 특히 이 특성을 숙지해 두어야 한다.

네 번째, 변질성은 점토를 건조시켜 가열하면 점토의 물리적 특성이 크게 변질되어 단단해지며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테라코타나 도자기를 제작할 수 있다.

또한 점토는 촉감성이 뛰어나기에 피부를 통하여 지각되는 예민한 촉감이 있으며 재질이나 온도에 따라 독특하고 다양한 촉감을 갖게 된다. 특히 부드럽거나 거친 촉감 등은 체험적 조형표현에 매우 중요하다. 또 다른 특징으로 점토의 정신성을 들 수 있다. 점토는 쾌적감이나 안정감, 편안함 등의 정신적, 정서적, 심리적 특성을 갖는다.

6) 임무근(1988), 「도예의 기초」, 미진사, p.33.

7) 서울교대미술교육연구회 이규선 외(2008),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p.281-282.

8) 위의 책, P.282

3) 도예의 제작 과정

“도예의 제작과정은 제토, 성형, 건조, 장식, 초벌구이, 시유, 재벌구이 순으로 이루어진다.”⁹⁾각 단계 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토(Caly Making)

점토를 선택해서 제토 하여, 점토의 점력증강을 이용해 오랜 시간 돌려서 반죽하는 것인데 점토내 공기층이 없도록 하고 성형 시 점토 결을 좋도록 만든다.

꼬막밀기는 도자기 소성 과정 중 기초가 되는 기본이며, 흙 반죽법을 일컫는 말이다. 오늘날에는 진공토련기, 휠타프레스 등 기계를 사용에 작업을 기계화하고 있다.

(2) 성형(Forming)

“도자기 성형방법에는 손으로 떡가래처럼 코일(Coil)을 만들어 쌓아서 하는 홑가래(Coiling)성형, 점토로 공을 만들어 손가락을 눌러서 기물의 형태를 만드는 펀칭(Pichning)법, 점토판(板)을 만들어 결합시키는 점토판에 의한 성형방법, 사용틀을 만들어 흙물(Slip)을 부어서 만드는 주입식 성형법, 회전엔에 의한 원심력을 이용하여 만드는 물레성형 등 이외에 여러 가지 성형방법”¹⁰⁾이 있다.

성형방법의 선택은 만들고자 하는 형태와 크기, 수량에 의해서 가장 적당한 방법을 선택해야한다.

(3) 건조(Drying)

올바르게 성형된 기물을 마무리하기까지 천천히 조심스럽게 거쳐야하는 과정이 바로 건조단계이다. 작품이 크기가 클수록 밀폐된 실내 건조실에서 습기를 주어가면서 서서히 건조해야한다.

작품을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나 직사광선이 있는 곳에 내놓으면 갈라지거나 파손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9) 한봉림, 권오훈 (1984), 「도예기법」, 창미, p.54

10) 서길용(1994), 「도자실기-기초이론과 실제」, 조형사, p. 132

(4) 장식(Decoration)

도자기를 아름답게 또는 기능성이 높게 하기 위하여 장식하는 방법은 “조각기법, 상감기법, 인화문 장식법, 도화기법, 색소지에 의한 기법, 시유방법에 의한 기법 등으로 분류”¹¹⁾한다.

다양한 방법들을 도자기에 응용하는 데는 먼저 작품이 만들어질 때 이미 계획되어야 하며, 작품의 크기와 형태 그리고 용도에 맞는 장식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온소성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식적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사용하는 유약이 투명유, 불투명유, 광택유, 무광택유, 색유 등 유약의 외관상 문제도 장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유약의 선택 또한 장식 면에서 중요하다.

(5) 초벌구이(Biscuit Firing)

초벌구이는 애벌구이라고도 하며 대개의 도자기는 섭씨 800도를 전후하여 초벌구이를 한다. 그림을 그리기 편리하거나 유약을 입히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초벌구이를 하며, 초벌구이를 하지 않을 경우 파손율이 높고 유약의 색상도 좋지 않다.

(6) 시유(Glazing)

유약을 도자기에 바르는 것을 시유(施釉)라고 한다. “시유 방법으로는 유약에 담그기, 스프레이건을 사용해 분무시유하기, 유약을 흘려서 입히기, 붓으로 바르기의 방법”¹²⁾ 등이 있다.

초벌구이 한 것과 건조 과정만 거친 것과는 흡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물(器物)에 유약을 바르면 유액의 두께 차이가 생겨 소성하여도 차이가 생긴다.

사람에게는 옷과 같은 역할로서 어떠한 유약을 어떻게 시유하느냐 하는 유약처리 방법과 불의 조절 차이에 따라, 같은 유약을 가지고도 작가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다.

11) 이진성(1999), 「도자공예계론」, 반도출판사, p.97

12) 서길용(1994), 「도자실기-기초이론과 실제」, 조형사, p.58

(7) 재벌구이(Glazing Firing)

재벌구이는 본 구이 또는 참 구이라고 한다. 마지막 단계인 재벌구이 과정에서 적절한 온도와 방법이 틀어지면 작품을 망치게 되므로 재벌구이 과정은 도자제작 전 과정 중 중요한 부분이다.

작가의 의도에 따라 재벌구이 과정에서 가스, 나무, 전기, 노천소성 등 어떠한 소성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 역시 다양하게 나타난다.

4) 도예의 성형 기법

도예의 성형은 기법에 따라 “손 성형, 물레 성형, 석고 성형”¹³⁾이 있다.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손 성형

물레나 틀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빚어 만드는 방법(Hand Building)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방법에 따라 다양한 조형표현을 즐길 수 있다. 어린 시절에 찰흙으로 갖가지 동물과 인형을 빚어 가지고 놀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만드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표현 할 수 있는 손 성형 제작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점토판 성형

점토판 성형은 “밀방망이로 만든 얇은 점토판을 말거나 접든지 또는 잘라 서로 결합하여 성형하는 것을 말한다.”¹⁴⁾ 기본적으로 점토의 성질인 수분의 상태와 점력의 이용 그리고 건조 상태와 접합의 기술 등을 습득하면 대형작품도 성형이 가능하며 다양한 작품을 연출 할 수 있다.

점토판은 두꺼운 천이나 캔버스 위에 약간 무르게 점토를 놓고 흥두께 모양의 둥근 나무 방망이를 활용하여 여러 방향으로 고르게 판을 만든다. 오늘날은 편리하게 점토판 제작기를 활용하여 넓고 두께가 일정한 판을 쉽게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작품의 형태에 따라 점토판을 적절하게 건조시킨 후 서로 접착시켜 형태를 완성하거

13) 김병역(1998), 「도자공예」, 일지사, p.44.

14) 클렌C, 벨슨 저, 임무근, 신광석 공역 (1980), 「도자예술」, 미진사, p.36

나 작은 기물은 바로 접합하여야 갈라지지 않는다.

점토판 작업은 접합 부분이 건조 시나 소성 시에 갈라지기 때문에 접합 시에 조심해야 한다. 점토판을 약간 건조한 이후에 접합하였을 경우에는 접합 이후에 급속히 건조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접합한 기물을 둘러쌓아 서서히 건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점토판 뒤에 얇은 천을 부착한 채로 기본 석고형이나 신문지, 또는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기본 형태의 밑틀에 점토판을 씌우거나 입혀서 형태를 만들기도 한다.

② 타래 성형

“타래 성형은 우리말로 가래 성형이라고도 한다. 타래성형은 먼저 점토를 반죽한 후 두께가 일정하게 만든 흙타래를 한 겹씩 쌓아 가면서 흙타래 사이를 접착시켜 형태를 만드는 방법”¹⁵⁾이다. 타래성형은 물레 제작 이전부터 활용되어 왔고 물레성형의 기계적 감각과는 달리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고 물레성형과 같이 원형의 좌우 동형인 형태를 만들 수 있음은 물론 형태를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 다양하게 활용된다. 또한 작품의 크기도 얼마든지 조절해 대형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도예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다.

③ 속 파내기 성형

속 파내기 성형은 조형성에 있거나 또는 형태가 복잡하여 다른 성형 기법으로는 불가능한 경우에, 속이 팍 차게 일단 성형한 후 표면이 조금 건조되어 단단해지기 시작하면 작품을 2~3단계로 절단하여 속을 파내고 다시 접착하여 완성하는 방법이다.

속이 팍 채워진 상태로 형태를 완성하는 방법은 필요한 부분에 점토를 가감하면서 생동감 있는 형태와 자연스러운 곡선미 등이 강조되어 손으로 쌓아 올리는 방법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형태를 완성할 수 있다. 그 반면 전체적으로 속 파내기를 하여 두께를 고르게 조절해야 하는 어려움과 접착을 해야 하는 후속 조치가 조금은 번거롭기는 하지만, 현대 도예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15) 한봉림, 권오훈 (1984), 「도예기법」, 창미, p.115

④ 주물력(핀칭기법) 성형

핀칭(Pinching)은 도예 기법 중 손쉽게 기초적인 방법이다. 도구가 전혀 없이도 가능하며 도예를 배우고자 하는 초보자들도 제일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며 누구나 간단한 설명을 듣고 제작 할 수 있다.

손 안에 질 만큼의 점토 덩이를 이용하여 처음에는 둥글게 공같이 만든 후 가운데 부분에 구멍을 내어 두 엄지손가락으로 점토의 벽을 점차 얇게 늘여주면 되는 것이다. 이는 커피 잔, 접시, 밥공기 등 조그마한 기물을 손쉽게 별다른 연장 없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초보자들에게 매우 친근감을 주는 방법이다.

(2) 물레 성형

물레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도예가들은 코일링과 핀칭방법을 이용해서 기물을 만들었다. 물레가 발명되고 흙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개발되었는데, 도예에서는 중요한 변화였다. 물레 성형 기법의 발달은 손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정확한 좌우대칭형의 가벼운 기물을 다량 만들어 내게 되었다.

오늘날은 “도자기의 제작 용도에 따라서 손 물레, 발 물레, 기계 물레, 전기 물레, 자동 기계 물레 등의 다양한 종류의 물레가 사용된다.”¹⁶⁾

물레성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발 물레성형

발 물레 성형은 가장 많이 활용되어 온 대표적인 재래식 성형방법이다.

발 물레에 성형은 재래식 기법으로서 대형작업이 가능하다. 발 물레는 발로 물레 밑판을 차거나 끌어당겨서 돌려주어야 하며 손은 원심력의 원리를 이용하여 물레 윗 판의 점토를 기물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발 물레는 대개 위판보다 아랫판을 더 크고 무겁게 제작하여 한번 회전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부드러운 회전을 계속 할 수 있게 한다. 발 물레에서 기물을 성형하기 위해서는 손과 발이 동시에 움직여야 하므로 꾸준한 연습과 반복이 뒤따라야 흔들림 없이 물레를 잘 할 수 있게 된다.

16) 신미영(2008), 「물레성형기법」, 예경, p.30

② 손 물레 성형

손 물레는 주로 조그마한 작품의 흙가래(coiling)를 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기물에 그림을 그릴 때 또는 그 외에 기물에 장식을 하기 위한 소도구로 주로 사용된다.

손 물레는 윗판과 아랫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발 물레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으나 크기가 작다. 현대의 손 물레는 주로 금속성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손으로 돌려주어야 회전이 된다.

③ 전기 물레 성형

전기 물레는 전기로 물레 회전판을 돌리는 장치로서 하단부에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무단변속의 발판이 부착되어 있다.

전기 물레는 전기의 힘으로 모터를 회전시켜 물레 밑판을 돌려주는 동안 손으로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힘이 덜 들고 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작품의 성형이 매우 용이하여 대형 항아리나 대형 접시 등의 큰 기물을 빠른 시간에 많이 만들 수 있다.

물레의 회전 속도나 좌우 회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서 도예가의 수고를 덜어주어 요즘은 주로 전기 물레를 많이 사용한다.¹⁷⁾

④ 용기물레 성형

용기물레는 물레의 윗판이 작업장의 바닥과 평행하도록 땅속으로 들어가게 설치하여 사용한다. 이는 커다란 항아리를 성형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것이며, 보통 물레보다는 위아래 판의 지름이 50~60cm 정도 되는 넓은 판을 사용한다.

용기물레용 연장은 기물의 밑 부분을 두드려 넓적하게 펴주는 방망이와 타래를 파서 붙인 후 기물의 안팎에서 서로 두드릴 때 사용하는 도리개와 수레가 있으며, 점토의 벽이 얇게 두드려진 후에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 짓는 근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을 다듬을 때 사용하는 목가새와 천으로 만들어진 물가죽이 있다.

17) 신미영(2008), 「물레성형기법」, 예경, p.37

(3) 석고 성형

“석고성형은 석고의 특성인 흡수성을 이용하여 물레나 손으로 만들기 힘든 형태를 제작할 때 용이하며 같은 형의 복수 제작에 편리하다. 다른 성형방법보다 창조적 디자인과 석고를 다루는 전문적인 기술능력이 요구된다.

석고성형에는 압착 성형, 주입 성형, 석고틀을 이용한 자동물레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⁸⁾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압착 성형

압착 성형은 커피 잔의 손잡이나 조그마한 동물 모양 등을 석고 틀에 넣어 점토를 눌러서 찍어내는 방법이다. 사용형의 석고 틀은 음각으로 되어 있고 그 속에 점토를 밀어 넣어 완성하는데 이때 점토는 수분이 조금 많게 하여 질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

기물의 형태가 접시나 밥공기, 커피 잔 모양 같이 위가 벌어져 있는 경우는 석고형에 점토를 손으로 눌러서 붙이거나 커피 잔의 손잡이 같이 두 개의 석고 틀 사이에 점토를 밀어 넣어 형태를 완성하기도 한다. 또는 아주 커다란 작품의 경우 주입 성형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거우면 각 석고 틀에 점토를 많이 밀어 넣어 접착 시킨 후 떼어내기도 한다.

② 주입 성형

주입 성형은 “현대에서 일반적인 산업 도자기의 생산 기법으로 도예가들에게 많이 활용된다. 또한 능률적이면서도 비용이 적게 들고, 대량으로 만들 수 있으면서도 개별적인 장식을 통하여 서로 다른 특징을 갖도록 할 수 있다.”¹⁹⁾ 주입 성형에 사용되는 슬립은 물을 섞어서 묽게 한 장식용 슬립과는 전혀 다르다. 이것은 아주 소량의 물로 점토를 액화시키는 규산소다(deflocculent)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작품의 복잡성에 따라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석고 형틀이 사용되는데 두 개 이상의 짝으로 구성된 형틀은 슬립을 채울 때 형틀이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탄력 밴드나 끈으로 묶고 슬립을 형틀에 고르게 붓는다.

18) 김병역(1998), 「도자공예」, 일지사, p.117.

19) 피터 코센티노 저, 이부웅 공역(2000), 「도예기법」, 예경, p.74

주입 성형된 작품들은 다른 기법으로 만든 것들보다 얇은 기벽을 형성하게 되지만, 장식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이런 얇은 기벽은 초벌구이 후에 유약에 함유된 물이 덜 흡수되도록 유약의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

③ 석고틀을 이용한 자동물레

산업도자에서 중시되는 성형 방법의 하나인 자동물레는 물레의 형상으로 자동화 되어 있는 물레 윗판에 똑같은 모양의 석고 틀 모양의 안쪽 형태와 똑같이 생긴 쇠로 된 칼날을 눌러서 석고 틀과 칼날 사이에 기물의 두께를 남겨놓고 나머지 점토는 칼날에 의해 제거하는 방식이다. 과정이 전 자동화되어 있는 자동물레를 사용하며 위의 칼날도 둥근 금속질 방망이 형태를 사용하여 회전 하면서 성형한다.

5) 도예의 종류

“도자기는 원료에 따라 점력이 우수해서 성형이 용이한 점토가 있고 반면에 점력은 적으나 내화성이 높아 고온 소성이 용이한 점토가 있다. 도자기의 종류는 흙의 성질과 굽는 온도에 따라 토기, 석기, 도기, 자기”²⁰⁾로 분류할 수 있다.

(1) 토기(土器)

일반적으로 유약을 칠하지 않은 그릇을 말하며 높은 온도로 소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지의 색상은 적갈색 또는 회색이며 철분이나 망간 등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2차 점토를 이용하여 산화 소성하면 밤색 계열의 색상이 나오고, 연기를 쏘이거나 환원으로 소성하면 회색에서 검정색의 색상을 띤다. 점토내의 불순물이나 모래 등의 영향과 저온 소성의 결과로 약간의 수분을 흡수하고 있다. 점토의 색상 자체가 탁색이기 때문에 유약 효과가 좋지 않다. 그러기에 토기는 유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백토로 분장을 한 후 저온 유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시시대의 기물, 화분, 기와, 토관, 테라코타 등이 토기”²¹⁾에 속한다.

20) 서길용(2000), 「도예 이론과 실기」, 예술문화사, p. 10-12.

21) 서길용(1994), 「도자실기-기초이론과 실제」, 조형사, p.58

(2) 석기(石器)

“석기는 크게 나누어 조석기와 정석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소지색은 일반적으로 청회색을 띠고 있다. 소성 온도는 1200℃~1300℃로 비교적 높은 온도로 소성되고 있다.”²²⁾ 조석기는 석기 점토 한가지만으로(單味) 또는 이와 비슷한 천연 점토를 사용하는데, 불순물로 산화철, 산화칼륨, 산화 나트륨등이 많은 양 함유되어 있으므로 용제(溶劑)역할을 하여 소지의 소결을 촉진시킨다. 정석기는 장식질도기나 골회자기 등과 같이 제조된 것으로 용제의 함유량이 많으며 규산분이 적은 소지로 사용한다. 때에 따라서 규석, 장식, 도석을 조금 사용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정석기는 주로 정제(精製)한 원료를 조합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정석기라고 한다. 소지의 조합은 석기질 점토 45~50%, 규석35~45%, 장식10~15%이며 유약은 식염유 또는 투명유, 매트유, 결정유 등을 사용한다.

(3) 도기(陶器)

“도기에는 장식질 또는 점토질의 경질도기와 석회질 또는 백운도기질의 연질도기가 있다. 흡수율은 경질도기가 15%이하이고, 연질도기는 20% 이하이며, 소지의 색상은 백색이고 제작이 쉽고 소성온도(1.100℃~1.200℃)가 자기보다는 저온 유약으로 사용한다는 이점이 있다. 자기에 비하여 경도와 기계적 강도가 낮으며, 소지는 다공질이고 흡수성이 있다. 도기 제품에는 위생도기, 내장용 타일, 일부 식탁 용기, 커피세트 등이 있다.”²³⁾

(4) 자기(磁器)

“자기에는 경질자기, 연질자기, 특수자기”²⁴⁾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경질자기는 소성온도가 1.350℃ 내외이며, 소의 뼈를 태워서 소지에 넣어 만든 골회자기가 이에 속한다. 골회자기는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서‘본차이나’라고 한다. 자기제품으로는 고급식기류, 공예품, 외장타일, 모자이크 타일 등이 있다. 특수자기는 소성온도가 1.450℃~1.800℃ 이며 흡수율은 0.5% 이하이다.

22) 이진성 (1999), 「도자 공예개론」, 반도출판사, p.21

23) 이진성 (1999), 「도자 공예개론」, 반도출판사, p.21

24) 위의 책, P.22

2. 도예 교육의 내용

도예는 ‘흙’이라는 소재로 모양이 이루어지고 그 형상이 조형예술 이라는 차원 높은 주춧대를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점토는 그 자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고도로 유동적이며 또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²⁵⁾라는 존 코플라스(John Coplans)²⁶⁾의 말처럼 흙은 두드리고, 찌르고, 치고, 다듬고, 다지고, 손으로 마음대로 만질 수가 있다.

흙으로 다져놓은 형태와, 색깔 또는 유약의 효과 등은 가마 속에서 전혀 뜻하지 않는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매우 자랑스러운 오랜 전통을 지녔음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도자 문화를 통해서이다.

고도로 산업화, 현대화된 오늘날의 생활 속에서 정서가 안정되지 않고 어린 시절 흙을 별로 만져본 적이 없는 현대의 학생들에게 자연 친화적이고 정서 발달에 유익한 ‘흙’이라는 재료의 촉각표현으로 창의적인 용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민족의 우수한 도자공예품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민족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준다. 또한 이를 응용하여 현대화 할 수 있는 예술, 문화, 산업자원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1) 도예 교육의 개념 및 특징

도예를 흙으로 만들어 불에 구워진 예술의 형태를 도자예술이라 하며 좀 더 학술적으로 정의한다면, “점토로 형태를 만들어 건조시킨 후 소성하여 완성하는 유형의 예술품을 통틀어 도자예술”²⁷⁾이라 한다.

과거의 도예는 수공업적인 기술에 의하여 미적으로 제작된 일품 도자였으며, 특수층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 이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재료와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실용

25) 가드클락(1993), 「도자예술의 새로운 시각」, 미진사, p.227

26) 존 코플라스(John Coplans) - 현대 예술에 대한 선구적 비평가

27) 송재선(2003), 「우리 나라 도자기와 가마터」, 동문선, p.17

성과 창의적인 예술성을 표현하는 미술과 공예의 두 영역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도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성과 물질성이다. 공간 속에서 입체로 존재하는 도예는 작품이 차지하는 실제적인 공간과 작품을 둘러 가상공간을 형성하며, 작품의 형태에 따라 주변공간이 달라진다. 이러한 공간 속에 흙이라는 독특한 물질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도예는 촉각적인 면과 더불어 관념적인 면도 강조된다. 흙의 성질에 따라 부드러운 촉감과 거친 촉감 등 다양한 촉감을 느끼게 하여 체험적 조형 표현에 중요한 정서적인 측면을 제공하며 또한 점토는 유연하므로 사물의 형태를 자유자재로 각자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 형태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점토를 힘껏 쥐고, 굴리고, 형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점토는 인간의 내적의식을 깊이 있게 이끌어낸다. 이러한 구체적인 이미지와 감정표현을 통해 내적세계를 표출하고 표현된 작품을 통해 깊은 자기 이해와 확고한 자아상을 인식하여 도예 통해 창조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

셋째, 도자기를 굽는 소성과정은 매우 흥미롭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마에서 기물이 구워지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흥분하며 작품이 구워지는 동안 많은 기대감을 유발한다. 소성방법은 “가마의 연료와 구조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연료에 따라 장작 가마, 전기 가마, 가스 가마 등이 있고 구조에 따라 승염식 가마, 도염식 가마, 등 가마, 터널 가마, 셔틀 가마등이 있다.”²⁸⁾ 이러한 소성과정 등이 도예 교육에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매우 좋은 교육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2) 도예 교육의 방법

“흙과 불의 예술 이라고 하는 도예는 각 나라마다 흙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가소성과 점력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독특한 표현방법으로 발전해 왔으며 현재에도 흙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표현영역을 확대”²⁹⁾ 시키고 있으며 현대의 도예는 더 이상 기능과 쓰임이라는 실용성에만 전적으로 목적을 두지 않는다.

28) 강진형, 안빈, 홍종숙(2006) 「이야기가 있는 아름다운 우리 식기」, 교문사, p. 192~194

29) 정동훈(1994), 「현대도자예술」, 디자인하우스, p.11.

산업혁명 이후 산업생산물이 수공예품을 대신하게 되었으며 기(器)라는 고유한 개념에서 벗어나 물건을 담거나 저장하는 일을 표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 도예는 흙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기술적인 성형방법 보다는 독창적이면서 창의적인 생각이나 사상을 바탕으로 작가 자신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해나가는 조형도예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예 교육은 지도하는 과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학생 개개인의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으로 시각, 생각, 또는 서로 다른 감정이나 표현을 드러낼 수 있다. 미술교사는 그 생각들을 반영되고 새로운 표현들이 창출되도록 학습과정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고려하여 볼 때 전문적인 자질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교사들은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도예 교육의 전 과정을 교육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학생들에게 적합한 도자기 제작과정을 설정하여 도자기에 대하여 이해하고,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3) 도예 교육의 수업안

(1) 단원 설정

경제와 산업의 안정은 사람들에게 생활 속에서 여유를 지니게 하였고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과 예술적인 미의식의 안목을 높여주었다. 이 단원은 자신이 직접 생활용품 제작하여 실생활에 활용하며 삶속에서 예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다양한 공예 작품을 감상하며 공예의 특성과 종류에 대해 이해하고, 재활용품을 이용한 작품을 제시하여 생활용품을 만들며 자연환경과 보존에 관해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첫째, 다양한 공예 재료 소개와 종이로 만든 의상, 꽃접시 만들기 등과 같이 한 재료의 다양한 표현 가능성을 제시하여 재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접근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흙으로 표현되는 테라 코타와 도자기의 특성을 서로 비교하고 도자기 명칭에 대한 탐구로 도자기 작품의 감상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셋째,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여 직접 작품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생활용품을 제작하며 개성 표현능력의 증진과 함께,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열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단원을 설정하였다.

(2) 단원목표

- 가. 흙의 특성과 다양한 표현 방법을 이해한다.
- 나. 도자기 제작 과정을 알고 창작의 즐거움을 느낀다.
- 다. 재료의 특성을 살려 유용하고 실용적이며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 라. 도자기 기초 성형기법을 익혀 실용적인 도자용품을 만든다.
- 마. 다른 작품을 보며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도자기의 멋을 느낄 수 있다.

(3) 대단원 학습 계획

<표-1> 대단원 학습 계획

시간	대단원	중단원	학습 내용	교수·학습 방법
2	내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	재료의 특징을 살려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예의 종류와 작품 감상 - 재료의 특성 살려 만들기 - 재활용하여 만들기 	개별 학습 실기 학습
3		흙과 불의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자기 성형방법, - 도자기 제작과정 - 도자기의 명칭과 종류, - 테라 코타 만들기 	실기 학습 감상 학습

(4) 소단원 학습 계획

<표-2> 소단원 학습 계획

시간	대단원	중단원	학습 내용	교수·학습 방법
1	흙과 불의 만남	도자기 제작과정 이론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자기의 성형 방법 - 도자기의 제작 과정 - 도자기의 명칭 - 도자기의 종류 - 도자기의 제작과정 - 도자기의 성형기법 	개별 학습 감상 학습 개별 학습
2		성형기법을 이용하여 작품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의 특성 살려 만들기 	실기 학습
3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작품을 감상하기 	감상 학습

(5) 교수·학습 방법 안내

가. ‘내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에서는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며 공예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재료와 형태를 새로운 시각으로 표현한 작품을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지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재료의 특징을 살려 만들기’에서는 재료의 특징을 직접 이해할 수 있게 다양한 재료를 마음껏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다. ‘흙과 불의 만남’에서는 테라 코타와 도자기의 특성을 비교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도자기 명칭과 감상 방법 등의 지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의 감상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며, 우리나라 전통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갖도록 지도한다.

(6) 교재연구 및 지도상의 유의점

① 교재연구

- 가. 학습 지도 계획은 학생의 자율성, 창의성 등이 존중되도록 하며, 흥미, 발달 단계 및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립한다.
- 나.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사나 계절 등을 고려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인다.
- 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한다.

② 지도상의 유의점

- 가. 다양한 발상 지도를 통하여 창의력과 학습효과를 높인다.
- 나. 주제 표현,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재료와 용구는 표현 활동 속에서 통합될 수 있다.
- 다. 교육 과정상의 내용에서 제시한 조형 요소와 원리는 학생들의 흥미, 수준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선정될 수 있다.
- 라. 작품 안에서 여러 가지 표현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마.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작품 전체의 형태와 흐름에 유의하도록 한다.
- 바. 표현 재료와 용구의 선택 및 활용 방법에 대한 지도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안전에 유의한다.
- 사. 표현 활동을 계획할 때에는 주변 환경과의 문제를 고려한다.
- 아. ‘미적 체험’ 및 ‘감상’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 자. 본 단원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단원이므로, 작품을 감상하고 학생 스스로 표현 주제와 표현 방법을 연구하여 나타 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차. 표현 활동 후에는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도록 한다.

(7) 평가계획

① 평가의 방향

평가는 주어진 과제에 대한 학습 목표의 도달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미술과

의 실기 평가는 지필 평가와는 달리 평가자의 견해차와 주관에 흐를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평가 관점과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에 주의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② 평가 관점

- 가. 제작 과정에서 준비성, 성실성 등의 태도를 평가한다.
- 나. 표현 방법의 독창성 및 용구의 효과적인 활용, 제작 과정에 대한 이해 및 적용 등을 평가한다.
- 다. 전체적인 짜임새 및 표현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평가 내용

- 가.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을 이해 하였는가?
- 나. 주제에 알맞은 재료와 기법을 선택하였는가?
- 다.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새롭게 표현하였는가?

(8)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

<표-3>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 1

단원명	대단원명	표현의 기쁨				
	중단원명	내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				
	소단원명	흙과 불의 만남				
학습 주제	흙 다루기	학년	1	시간	2/2	
학습 목표	① 도자기 제작과정을 설명 할 수 있다. ② 성형 기법을 이용하여 생활 도자용품을 만들 수 있다.					
준비물	교 사	교과서, 참고 작품, 돌림판 등				
	학 생	도자기 흙, 찰흙, 도자기 성형 주걱, 자, 칼 등				

<표-4>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 2

학습 목표	③ 도자기 제작과정을 설명 할 수 있다. ④ 성형 기법을 이용하여 생활 도자용품을 만들 수 있다.				
준비물	교 사	교과서, 참고 작품, 돌림판 등			
	학 생	도자기 흙, 찰흙, 도자기 성형 주걱, 자, 칼 등			
학 습 전 개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교사	학생		
도입	선수 학습 확인	- 도자기 제작과정에 대하여 질문한다. - 도자기의 제작과정을 정리한다. (성형-건조-1차소성-시유-2차 소성) - 1차 소성을 다른 이름으로 무엇이라 할까요? - 2차 소성을 다른 이름으로 무엇이라 할까요?	- 도자기의 제작과정을 정리 한다. - 선수학습 질문에 답한다.	1분	ppt
	학습 동기 유발	- 도자기 작품을 보여준다. - 펀칭기법을 이용한 작품 - 코일링 기법을 이용한 작품	- 도자기 작품을 감상한다. - 자유롭게 발표한다.	2분	ppt 및 도자 기 작품
	학습 목표 제시	-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① 도자기의 제작과정을 설명 할 수 있다. ② 성형 기법을 이용하여 생활도자용품을 만들 수 있다. - 학습목표를 칠판에 판서한다.	- 학습목표를 읽는다.	1분	ppt

<표-5>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 3

학 습 전 개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교사	학생		
전개	전체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성형 기법동영상을 보여준다. ① 꼬막 작업 ② 핀칭 기법 ③ 코일링 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을 본다. - 성형기법을 학습한다. 	7분	ppt
	개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작품에 알맞은 성형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창의적인 표현이 되도록 지도한다. - 흠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차분한 분위기에서 표현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꼬막밀기를 한다. - 기초 성형 기법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든다. 	30분	
정리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의 작품을 비교·감상한다. - 형태가 망가지지 않도록 그늘진 곳으로 옮겨 잘 마를 수 있도록 나무판 등에 올려놓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비교·감상한다. - 작품을 이동시킨다. 	2분	ppt
평가	형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평가 문항 제시 - 송편처럼 손으로 빚어내는 기법을 무엇이냐 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평가 문항에 답한다. 	1분	ppt
	차시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시예고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시학습을 파악한다. 	1분	ppt

(9) 수행평가 기준안

<표-6> 수행평가 기준안

단원명	대단원명	표현의 기쁨		
	중단원명	내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		
	소단원명	흙과 불의 만남		
평가유형	평가관점	평가기준	성취도	
구상계획	계획성 수업내용 용과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에 대한 창의성이 뛰어난 스케치를 하였다. - 내용이 풍부하고 대체로 스케치를 짜임새 있게 하였다. - 주제가 분명치 않고 화면이 단조롭고, 미완성이다. 	우수 보통 미흡	
작품평가	창의성 응용성 성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의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형태를 만들었다. - 작품의 사용을 고려한 실용적인 형태를 만들었다. - 대체적으로 흙을 이용한 미완성의 형태를 만들었다. 	우수 보통 미흡	
태도	자기 주도적 능동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준비와 제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리를 한다. - 학습준비와 제작을 성실히 하고 정리를 한다. - 학습준비와 제작에 관심이 미흡하고 정리가 미흡하다. 	우수 보통 미흡	

(10) 도예 수업에 따른 고찰

‘표현의 기쁨’ 단원은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즐거움을 느끼고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다뤄보지 않았던 도예의 이론과 도예 제작 부분이므로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단원이다.

다양한 표현 방법과 도자기의 제작 과정을 이해하며 학생들에게 창작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을 시행하였다. 도예 이론을 영상과 이미지를 통한 쉬운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고, 친근감 있는 소재인 흙을 이용한 도예 수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학생들의 기대는 직접 만들 수 있는 도자기 제작에 대한 관심이 집중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자기의 제작과정 중 초벌구이와 성형, 건조 단계까지의 수업은 학교에서 쉽게 할 수 있으나 수업시수의 부족과 기자재의 부족으로 장식과 초벌구이, 유약 바르기, 재벌구이 까지 완성품을 제작할 수 있는 수업은 쉽지 않은 것이 현 도예수업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그 과정과 완성품을 제작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도예 제작 과정 전부를 체험해 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학생들이 도예를 시도하는 경험은 많았지만, 완성해보았던 경험이 적어, 도예의 제작과정과 완성된 결과에 대한 기대로 인해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작품의 자유로운 주제와 이미 이론을 통해 습득한 기초 성형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작품이 나오게 되었고, 직접 만든 컵과 그릇, 장식품 등 작품계획 단계에서부터 성형단계까지 흙을 다루고 접하지 못했던 실기 수업 임에도 완성을 할 수 있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시작하여서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혼잡함 없이 진지하게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흙을 다루면서 학생들의 체험과 느낌을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였을 때, ‘편안하다. 따듯하다. 말랑거린다. 재밌다.’ 등 다양한 느낌을 자유롭게 발표하면서 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더해 줄 수 있었다.

건조단계를 위해 함께 도자기를 그늘에 가져다 놓으며 건조의 과정을 함께 경험하였고, 유약 바르기와 재벌구이를 재설명을 해주고 연구자가 학생들의 작품을 사설 도예공방을 통하여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에게 도예의 이해를 위

해 도자기 작품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는지 사진을 찍어 영상으로 보여주어서 더욱 신기해하였고 작품이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량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였다. 완성품을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해 주었을 때 처음으로 완성된 모습의 도자기를 자신의 수중에 지니게 되면서 도자기를 통해 자신감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도예수업을 하면서 도예 제작 과정에 대하여 정확히 습득하였고, 직접 체험을 통한 소중한 추억도 함께 나눌 수 있어 미술수업의 또 다른 즐거움을 알려주는 시간이 되었다.

본 연구자의 도예 수업을 통해 흙을 이용하여 만드는 즐거움,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체험과 완성된 도자기에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은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창작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3. 도예 교육의 중요성

도예 교육은 자연의 일부인 흙을 주재료로 하고 점토의 성질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어 내는 포괄적인 과정을 교수 학습하는 활동이다. 도예 교육은 현재 입시위주 우리교육이 직면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며 인성교육, 창의성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통합적인 인격과 정서에도 도움을 준다.

인류가 흙을 이용하여 그릇이나 생활용품을 만들어 사용한 역사는 매우 오랜 시간이 되었다. 흙과 인간,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는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함께 해야 하는 불가분의 관계일 것이다. 특히 우리민족은 도예를, 생활 용품으로, 기능을 초월한 격조 높은 예술품으로 발전시켜서 출중한 도자 문화를 이루었고 이를 향유해 왔다. 토기시대의 독특한 형상미의 표현과 회화적 감각이 돋보이는 분청사기, 그리고 소박 담대한 조선의 백자 등은 매우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예지를 나타낸 민족 문화인 것이다. 현대에 와서 도예의 의미는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기는 물론 더 나아가 조형예술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날로 발전하고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자연의 근원인 흙을 접할 수 있는 도자기의 소구성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도자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통 도자기와 현대 도자기로 분류할 수 있다.

전통도자기는 과거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계승하여 만든, 토기, 청자, 분청사기, 백자, 용기 등을 말하고, 현대 도자기는 전통도자기 이외의 것으로 공예도자, 조형도자, 산업도자, 환경도자 등으로 재료와 표현 할 수 있는 기법 등을 다양하게 적용시켜 만든 작품을 말한다.

로웬펠드(Lowenfeld)³⁰⁾는 “찰흙은 입체감과 유연성을 갖고 있어 학습자들의 개념이 융통성 있게 된다.”³¹⁾고 하였다. 이와 같이 찰흙은 학습자들에게 원초적인 감각경험과 즐거움을 주며 3차원적 매체가 줄 수 있는 입체적 조형 활동을 제공해 준다.

미술은 자신을 비롯한 타인과 소통하게 하며, 그 중에서도 도자기는 전통문화와 예술에 대해 이해하고, 옛 전통을 수용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

30) 로웬펠드(Lowenfeld) - 20세기 오스트리아의 미술교육자.

31) 안혜영(1999), 「교사를 위한 새로운 공예교육」, 트리몬드, p.146.

고유의 정, 나눔, 더불어 사는 삶의 실천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흙이라는 매체 표현은 특수한 재료 덕분에 지니는 감각을 통해, 자연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자아 표현의 기회를 많이 부여하여 전인적인 인격형성과 창의성 개발에 도움을 준다.

점토는 학생들에게 쉽게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는 가소성의 성질로 인해 풍부한 사고를 하게 해주고 제작과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작품의 형태를 쉽게 다룰 수 있게 하며 조형능력, 관찰력, 공간지각 능력 등의 증진과 더불어 점토의 부드러운 촉각으로 긴장을 풀어주고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재료이다. 이와 같은 점토의 특성을 통한 도예 교육은 현대인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을 지닌 교육방법이다. 자신에 관한 전반적인 일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을 타인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며, 인간의 의사소통에 중요한 요인임과 동시에 심리적 정화작용을 가능케 하여 정신건강의 유지나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 도예는 자신의 내면을 작품을 통해 표출하면서 참다운 자아 형성의 기회를 얻게 해준다. 자신의 내면과 만나는 기회가 증대될수록 긍정적인 인격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올바른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체성이 형성되며 적극적이고 생산적이며 능률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된다.

Ⅲ. 중학교 도예 교육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1. 중학교 미술교육의 현황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강조하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제7차 개정 교육 과정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는 중요하다. 이에 제7차 중학교 미술의 성격 및 교육과정을 통해 목표를 확인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내용과 미술교육과정에서의 도예 교육을 살펴보았다.

1) 미술과 교육의 성격 및 목표

(1) 성격

미술은 느낌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시각 이미지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예술의 한 영역이다. 또한, 미술은 그 시대의 문화 흐름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술 문화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나아가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미술 교과 교육은 미적 감수성과 직관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시각적 조형물이 가진 아름다움을 느끼며 누릴 수 있는 심미적 태도와 표현력,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 준다. 따라서 미술의 다양한 체험, 표현, 감상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인 사고를 길러주며, 미술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³²⁾

첫째, 생활 속에서 미적 감수성과 미의식의 체험을 확대함으로써 문화적 가치와 정보, 환경, 생명 등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

둘째, 다양한 동기 유발을 통해 표현 의지를 북돋워 주고 주제, 표현 방법, 조형

32) 교육인적자원부(2007), 미술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 p.5-10.

요소와 원리, 재료와 용구 등의 표현 요소와 표현 계획, 수행, 반성 등의 표현 과정, 표현의 확장에 관한 체계적인 탐색과 자기 주도적인 표현 활동으로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나타내게 한다.

셋째, 미술 작품을 비롯하여 시각 문화 환경에 대한 미적 반응이나 판단을 토대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며, 문화유산을 미학적,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자긍심을 길러 전통 미술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게 한다.

(2) 목표

미술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미적 감수성, 창의적 표현 능력, 비평 능력을 키우고, 미술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첫째,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대상과 현상에 대한 미적 감수성을 기른다.

둘째,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셋째, 미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넷째, 미술을 생활화하여 미술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이에 따른 중학교 미술 교과목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 속에서 미술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이해한다.

둘째, 목적과 의도에 맞게 표현을 계획하고 적용한다.

셋째, 미술 작품을 맥락적으로 해석하고 미술 문화의 의미를 이해한다.

2) 내용 영역

미술 교과 내용 영역은 ‘미적 체험’, ‘표현’, ‘감상’으로 이루어진다. 각 영역별 교수·학습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미적 체험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자연과 시각 문화 환경에 대한 탐색, 탐구, 이해, 판단 등의 학습 활동을 전개한다. 이 영역은 학습자의 감각적인 체험을 통하여 관계를 인식하는 사고와 비판적인 안목을 형성하는 판단 과정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³³⁾

‘표현’은 주제,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과정, 표현의 확장을 경험함으

33) 교육인적자원부(2007), 미술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 p.5-10.

로써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주도적으로 나타내는 영역이다. 이 영역의 지도는 표현 매체와 방법에 대한 감각과 기능, 표현 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해 나가는 조직적인 능력을 기르게 한다. 또, 표현 활동과 다른 영역을 관련짓는 적용 능력과 태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감상’은 미술 문화의 이해, 비평, 향수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과 태도를 준비하는 영역이다. 이 영역은 인지적인 접근을 통하여 미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비평적인 언어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토대로 미술을 문화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미술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중학교 7, 8, 9학년의 영역에 따른 내용 체계는 다음 <표-7>과 같다.

<표-7> 중학교 1, 2, 3학년의 영역에 따른 미술 교과 내용 체계

영역	중 학교 1, 2, 3학년 (7, 8, 9학년)
미적 체험	① 자연 환경 자연 환경과 시각 문화 환경의 조화에 관하여 이해하기
	② 시각 문화 환경 시각 문화 환경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기
표현	① 주제 표현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② 표현 방법 여러 가지 재료와 용구,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③ 조형 요소와 원리 조형 요소와 원리를 활용하여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④ 표현 과정 표현 의도에 알맞은 표현 과정을 계획하기
감상	① 미술 작품 미술 작품의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해석하고 감상하기
	② 미술 문화 미술 문화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기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7), 미술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 p. 5-10.

2. 중학교 미술 교과서의 도예 영역 분석

1) 중학교 미술 교과서 분류

본 연구에 분석된 7차 개정 중학교 미술 검정교과서는 총 9종으로 내용은 다음 <표-8>과 같다.

<표-8> 제7차 개정 중학교 미술 교과서 분류

도서명	출판사	저자
중학교 미술	(주)교학사	노영자, 이인숙
중학교 미술	교학연구사	이성도, 김혜숙, 박남정, 서석례, 안혜경, 안정희, 유부미
중학교 미술	도서출판지학사	김정희, 이주연, 안금희, 김현정
중학교 미술	두산동아(주)	고승혜, 이완숙, 장선화, 고승근, 규제순
중학교 미술	(주)미래엔컬처그룹	안혜경, 오자영, 류장걸, 유장열, 이익균
중학교 미술	미진사	조중현, 김세은, 김수영, 박지영, 손지현, 정보은, 정윤정
중학교 미술	일진사	김용숙, 김재열, 이재만
중학교 미술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박은덕, 오미숙, 황은숙, 고헌경
중학교 미술	(주)지학사	김용주, 김경서, 조익환, 전종주

2) 중학교 미술 교과서 공예 관련 단원 분석

중학교에서는 제 7차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다. 제 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적체험, 표현, 감상의 내용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영역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미적체험 영역은 미적대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표현 영역은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감상 영역은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미술문화유산을 존중할 수 있다. 본 연구에 분석된 7차 개정 중학교 미술 교과서는 총 9종의 도예 관련 단원의 비중 분석과 교육과정 분석은 <표-9>, <표-10>와 같다.

<표-9> 중학교 미술 교과서 단원으로 본 도예 영역의 비중 분석

출판사	공예 영역 단원명	쪽 수 (page)	도예 영역 단원명	쪽 수 (page)
(주)교학사	현대 생활용품의 기능과 아름다움	9	흙과 불의 조화 ~도자공예	1
교학연구사	현재로 이어진 전통	32	흙과 불의 만남	4
도서출판지학사	생활과 공예	8	흙으로 만들기	2
두산동아(주)	우리가 꿈꾸는 디자인	9	다양한 공예의 세계	1
(주)미래엔컬쳐 그룹	재료에 생명을	36	대지의 흙	4
미진사	공예알기	11	흙과 불이 만나면 도자 공예	2
일진사	생활 속의 디자인	10	흙과 불로 빚은 도자기	2
(주)중앙교육진 흥연구소		-	흙과 불의 만남	6
(주)지학사	내손으로 만드는 즐거움	11	흙과 불의 만남	2

위 <표-9>에 따른 각 출판사별 단원으로 본 도예 영역의 비중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9종의 미술 교과서의 공예 관련 단원은 전통 공예와 현대 공예로 구분되어 있고, 전통 공예는 주로 전통 공예품을 다루고 있으며, 현대 공예에서는 공예 전반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공예의 재료와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여 학생들의 발달에 관심을 두어 교과서를 구성하였다. 평균적으로 공예 부분을 재료별로 크게 도자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종이공예, 염색공예 등으로 분류하여 공예영역의 다양한 재료를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출판사 교학사. (주)두산동아. 일진사는 디자인영역과 함께 공예가 설명되면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집중적인 공예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 교학연구사와 도서출판지학사는 전통문화와 함께 다양한 공예 영역을 다루고 있으나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전통 도예에 대한 설명이 많아서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강조되는 부분이 변화되는 교육과정에 부합하지만, 현대 공예를 같이 다루어 공예의 전반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주)미래엔컬처그룹은 공예영역의 구분을 재료에 따른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어서 흙이라는 재료를 세부적으로 다루어 도예의 이해가 쉽고, 전통도예와 학생작품의 과정에서는 완성까지의 단계를 다루고 있어 학생들에게 도예의 흥미를 더해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미술 교과서는 표현 관련 단원의 영역 비율과 페이지와 단원의 수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순수영역과 응용영역의 비중의 차이가 크게 난다. 또한 공예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다. 도자공예의 경우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었지만 집중적인 도예 학습으로는 부족함이 있고, 제작이 힘든 금속공예와 목공예는 드물게 다루어져 학생들이 공예영역을 어렵게 느낄 수 있다.

미술 교과서가 제7차 미술과 교육 과정의 필수 학습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습자의 생활 경험과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요소를 강조하거나, 여러 가지 요소가 통합되어 구성되어지기 때문에 교과서의 학습내용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 이는 교과서 내의 내용만으로는 학습자가 도예분야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공예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미술 교과서의 공예 교육 과정의 확대가 필요하며 공예에 대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내용과 학습 방법이 요구된다.

<표-10> 중학교 미술 교과서 도예 관련 학습 내용

출판사	단원명	학습 내용
(주)교학사	Ⅲ.표현 10.현대 생활용품의 기능과 아름다움 - 흙과 불의 조화	도자공예의 특성과 제작과정을 이해 하고 흙을 이용하여 다양한 작품을 만든다.
교학연구사	6.현재로 이어진 전통 - 흙과 불의 만남	도자기의 변천과정을 이해하고 조형 성과 실용성을 갖춘 도자기를 제작 활용한다.
도서출판 지학사	Ⅲ.사회와 함께하는 미술 6.생활과 공예 - 흙으로 만들기	시대별 도자기의 특징과 용도를 알고 제작한다.
두산동아(주)	11.우리가 꿈꾸는 디자인 ⑤다양한 공예의 세계	도자공예가 건축이나 조소분야에 활 용되어진 생활의 예를 찾아본다.
(주)미래엔 컬처그룹	Ⅲ.표현하는 즐거움 10.전통의 향기를 담아서 - 다양한 우리 공예	전통의 소중함을 알고, 전통 공예의 종류와 그 특징을 현대적 감각에 맞 도록 표현한다.
미진사	6장. 미술과 생활 2.공예 알기 - 흙과 불이 만나면 도자공예	우리나라 전통 도자기의 제작 시기와 시대별 특징을 알 수 있다. 도자기의 뜻을 이해하고 제작과정을 알아본다.
일진사	Ⅱ.표현 13.생활속의 디자인 - 흙과 불로 빚은 도자기	도자기에 대해 이해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본다.
(주)중앙교육 진흥연구소	생활 속의 숨 쉬는 미술 - 흙과 불의 만남	흙의 특성을 이해하고 생활에 필요한 도자기를 제작한다.
(주)지학사	내손으로 만드는 즐거움 - 흙과 불의 만남	흙의 특성과 다양한 표현방법을 이해 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위 <표-10> 중학교 미술 교과서 도예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교학사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방법은 ‘현대 생활용품의 기능과 아름다움’을 주제로 하였고, 찰흙을 이용하여 그릇이나 장식품 만들기과 방학을 이용한 과제 학습으로 도자기 굽는 가마를 방문하고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알아보는 내용이 있었다. 생활용품이 도자기에 대해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므로 도예 제작과정이나 도예의 특성 등은 자세히 알 수 없었고, 방학을 이용하여 과제 학습으로 제시한 것은 미술 교과서의 시수 및 실습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보충 하는 것을 알게 해 주는 단원의 구분과 학습내용이다.

교학연구사는 ‘흙과 불의 만남’을 주제로 도자의 종류와 활용에 대해 알아보고 도자기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며, 조형성과 실용성을 갖춘 도자기를 제작 할 수 있도록 성형 과정이 제시되어 있었다. 또한 전통도예와 현대 도예의 변천과정을 알기 쉽게 구성되어 있어, 그에 따른 전통의 소중함과 도자기가 현대적 감각으로 변화되어 제작되어진 모습도 비교하며 다양한 도예학습을 할 수 있다.

도서출판지학사는 ‘생활과 공예’를 주제로 시대별 도자기의 특징과 용도를 알고 제작하는 학습구성이다. 생활용품을 비롯하여 도자기 제작에 대한 이론 등 도예 관련 내용이 없어서 도예를 이해하고 직접 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예의 기초 이론을 다루어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내용이 필요하다. 두산동아(주)는 흙의 특성을 알고 기초성형방법을 이용한 도자기를 제작하기, 적합한 표현방법을 활용하고 용도에 알맞게 제작하는 학습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하고 활용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자공예의 여러 가지 제작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서 다양한 도예의 영역을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주)미래엔컬처그룹은 ‘표현하는 즐거움’을 주제로 전통공예와 다양한 현대의 표현에 따른 현대도자를 통해 도예의 변화된 표현 방식을 학습 내용으로 다루었고 이를 통해 도예의 시대별 특징과 의미를 알 수 있게 하였다.

미진사는 도자기 제작에 필요한 기초 성형 과정을 다루어 제작과정을 알고, 도자기의 종류, 기법, 무늬, 도자기의 형태 등을 관찰하고 예시작품에 맞는 특징을 설명하기 등의 과제를 제시하며 학생들에게 도예 관련 이론을 자세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예의 단원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도예의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학습효과를 높힐 수 있는 학습 내용이다.

일진사는 ‘생활 속의 디자인’을 주제로 생활 도자기의 종류가 설명되었으나, 도자기 제작 방법과 그에 따른 도자기의 종류를 이해하기에 도예 관련 이론이 부족하다. 주변에서 도자기로 만든 제품을 찾아보는 내용을 제시하며 도자기를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깊이 있게 도예를 집중적으로 학습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초 성형기법과 도자기 제작 과정등의 이론이 필요하다.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는 도자기의 전통적인 측면을 강조 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자기에 관한 자료를 시대별로 수집하여 그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내용이 구성되었으며, 과제물로 전통 가마나 도자공장 등을 방문하여 도자기가 만들어 지는 과정을 체험 해 보도록 제시하고 있다.

(주)지학사는 도자기의 성형방법, 제작과정, 도자기의 명칭과 종류, 테라코타를 만드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도예의 이론을 파악할 수 있게 학습 내용이 다루어 졌고, 그에 따른 실습을 통한 체험적인 부분을 채워주어 학습의 흥미를 높힐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다.

3) 중학교 미술 교과서 도예 내용 분류

중학교 미술 교과서의 미적체험 영역에서는 자연과 함께 하는 재료의 특성을 미술품으로 도예를 보여주고 있고, 표현 영역에서는 인물의 표현, 동작의 표현을 재료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점토를 소재로 하는 예시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감상영역에서는 한국과 다른 나라의 미술문화를 설명하면서 도자의 역사를 설명하거나 유물인 도자기를 사진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다.

도예 영역은 점토, 석고, 환조, 부조, 도예의 역사, 도자 감상 등이 포함되어있다.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서의 도예 내용을 도예 제작과정, 도예 성형과정, 도예 종류에 따라 분류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도예 제작과정에 따른 분류

도예의 제작 과정은 제토, 성형, 건조, 장식, 초벌구이, 시유, 재벌구이 순서로 이루어진다. 각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도예 제작과정에 따른 분류는 <표-11>와 같다.

<표-11> 중학교 미술 교과서의 도예 제작과정에 따른 분류

출판사	성형	초별	장식	재별
(주)교학사	3			5(학생작),7
교학연구사	2			13
도서출판지학사				3(학생작),8
두산동아(주)				12(학생작),1
(주)미래엔컬처그룹	4	1		1(학생작),4
미진사		2		2(학생작),5
일진사		1	1	1(학생작),1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5	1	2	1(학생작),10
(주)지학사	1			1(학생작),8

위 <표-11>에 따른 각 출판사별 내용을 분석한 것은 다음과 같다.

(주)교학사와 교학연구사, (주)지학사는 성형의 단계를 다룬 예시작품에 반해 재별구이 단계의 예시작품이 많았다. 실제 도자기의 제작과정을 예시작품과 사진첨부를 통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유발 하도록 유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도예 제작과정의 이미지가 제시된다면 완성된 도자기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도서출판지학사와 (주)두산동아는 기초 도예 성형 방법의 내용이 있으나 예시작품으로는 성형의 과정을 포함하여 제작과정의 모습이 나와 있지 않고 완성이 되어있는 작품들이 예시작품 으로 다루어져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도예를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에 학생들이 직접 참고 하여 만들 있도록 제작과정과 그에 따른 예시작품이 있게 되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주)미래엔컬처그룹과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는 제작과정에 따른 작품 분류가 잘

되어있고 예시작품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도예를 통한 학생들의 흥미를 더해줄 수 있는 학습 구성이다.

미진사와 일진사는 도예 관련 예시작품이 적고, 도예의 기초이론 내용이 없어서 도예 제작 과정의 이론과 예시작품이 첨부되어 학생들에게 도예를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도예 성형과정에 따른 분류

도예의 성형은 기법에 따라 손 성형, 물레 성형, 석고 성형이 있다. 도예성형과정에 따른 분류는 <표-12>로 각 출판사별 내용을 분석한 것은 다음과 같다.

<표-12> 중학교 미술 교과서의 도예 성형과정에 따른 분류

출판사	손 성형	물레 성형	기 타
(주)교학사	5	4	3
교학연구사	8	5	
도서출판지학사	6	3	2
두산동아(주)	9	2	
(주)미래엔컬처그룹	2	2	2
미진사	3	5	1
일진사	1		1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7	3	3
(주)지학사	1	8	

(주)교학사 교과서는 성형방법 중 ‘손 성형’의 경우 제작과정에 따른 과정 없이 완성된 작품만을 제시하여 작품의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예시작품으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겠다.

교학연구사와 두산동아 도서출판 지학사,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는 ‘손 성형’과 ‘물레성형’의 예시작품 비율이 알맞게 수록 되어 있고 ‘손 성형’을 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 따른 완성작이 예시작품으로 수록되어 있어서 이해가 빠르며 ‘손 성형’을 통한 장식의 과정도 보여주어 도예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기타작품으로 예시된 성형 작품은 기성 작가의 작품을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도예의 영역을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주)지학사와 일진사는 전통도예에 관한 이미지와 설명으로 ‘손 성형’과 ‘물레성형’에 대한 내용과 기법의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교과서 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듯이 전체적으로 손성형 예시작품의 비율이 높은 교과서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내용의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물레성형을 제외하고 손 성형 작품 중 학생들의 작품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부분은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어 작품제작에 쉽게 접근하도록 유도하여 완성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였고 작품이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성취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3) 도예 종류에 따른 분류

도자기는 원료에 따라 점력이 우수해서 성형이 용이한 점토가 있고 반면에 점력은 적으나 내화성이 높아 고온 소성이 용이한 점토가 있다.

도자기의 종류는 흙의 성질과 굽는 온도에 따라 토기, 석기, 도기, 자기 등으로 분류 된다.

토기는 일반적으로 유약을 칠하지 않은 그릇을 말하며 원시시대의 기물, 화분,기와, 토관, 테라코타 등이 토기에 속하는데, 수업 시수 등에 이유로 유약을 칠하지 않은 초별구이까지 단계인 토기의 예시작품과 실용적인 생활 도예나 공방 도예로 많이 활용되는 석기의 예시작품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 미술 교과서의 도예 영역을 도예 종류에 따라 분류한 내용은 <표-13>과 같다.

<표-13> 중학교 미술 교과서의 도예 종류에 따른 분류

출판사	도기	석기	도기	자기
(주)교학사	5	5	1	1
교학연구사	3	6	3	1
도서출판지학사	3	5	1	
두산동아(주)		10		
(주)미래엔컬처그룹	6	3		
미진사	3	6		
일진사	1	7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6	14	2	1
(주)지학사		8		

(주)교학사는 도자기의 여러 종류와 다양한 예시작품이 많이 제시되어 있고, 흙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예시작품으로 흥미를 유발하는 장점이 있었다. 특히, 전통 도예인 청자와 분청사기를 포함한 현대공방 도자기와 조형도자기 등이 석기에 속하는데, 쉽게 접할 수 있는 석기의 종류가 예시작품으로 많이 수록되어있는 점에서 학생들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대별 도자기 특징을 각 종류별로 설명하여 도예의 역사 등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도예 종류에 따라 예시작품의 비율이 낮은 자기의 경우, 고급식기류나 공예품, 외장 타일, 모자이크 타일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교과서의 예시작품으로는 적합하지 않게 보인다. 교과서 수록에 적당한 도예작품은 학생들이 교과서를 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류의 도자기이거나 전통 문화와 예술을 이해시킬 수 있는 전통 도예를 예시작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3. 중학교 미술 교과서의 도예 교육의 개선 방안

중학교 미술 교과서의 경우 검인정 교과서로 검정 과정을 통해서 합격된 출판사의 교과서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 제시된 단원들은 학교 사정에 따라 선택, 재구성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각 출판사별로 단원 구성의 방식도 다르다. 중학교 미술 교과서의 전반적인 내용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그 내용과 관련된 참고 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핵심적인 이해 내용이나 활동 과제, 표현상의 유의점 등은 잘 보이도록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다.

셋째, 부록과 학습정리에서는 더 자세한 정보와 자료, 참고 작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학교 미술 교과서 9종을 선택하여 도예 제작과정에 대한 분석과 도예 성형과정에 대한 분석, 도예 종류에 따른 분석을 하여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1) 도예 제작 과정에 대한 분석

전반적인 도예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제토, 성형, 건조, 장식, 초벌구이, 시유, 재벌구이 순서로 진행되는데 비해 중학교 미술교과서에 수록된 도예의 제작과정은 도예를 이해시키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 우선 출판사별 제작과정에 따른 예시작품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이는 재벌구이를 할 수 있는 완성작품의 예시작품이 많았던 반면, 도예 제작의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건조, 장식, 초벌구이까지의 예시작품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에 제시된 예시작품을 통해 제작과정을 다룬 풍부한 예시작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완성되어져 있는 상태인 재벌구이단계의 예시작품이 많이 보여 졌을 경우, 학생들은 도예를 어렵게 느끼며 도예 제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욕을 감소시킬 문제점이 있다. 실제 도예를 제작하는 과정을 이론으로만 다룬 교과서도 지적되었

으며, 이론적인 면보다는 실기제작 위주의 과정에 따른 작품의 분류와 함께 골고루 예시작품이 수록되어야 하겠다.

2) 성형과정에 대한 분석

도예의 성형은 기법에 따라 손 성형, 물레 성형, 석고 성형이 있으며 각 출판사 별 성형과정에 따른 분석한 것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교과서에 수록된 성형과정은 학생들이 참고하여 제작하기 쉬운 손 성형의 예시작품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손 성형의 예시작품의 비율이 높은 이유에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기 때문이며, 물레 성형을 제외하고 손 성형 작품 중 예시작품으로 학생들의 작품이 많이 수록되어있는 부분은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완성이라는 목표에 대한 성취감을 이루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형과정에 따른 예시작품이 많을수록 학생들이 교과서를 보며 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학생작품을 예시작품으로 수록할 뿐 아니라 다양한 성형방법의 제시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3) 도예종류에 대한 분석

도자기는 원료에 따라 점력이 우수해서 성형이 용이한 점토가 있고 반면에 점력은 적으나 내화성이 높아 고온 소성이 용이한 점토가 있다. 도자기의 종류는 흙의 성질과 굽는 온도에 따라 분류 할 수 있다. 도예 종류에 따라 토기, 석기, 도기, 자기로 분류한다. 석기의 예시 작품이 제시 비율이 높게 되어있는 것은 주위에서 쉽게 접 할 수 있는 생활도자기들이 대부분 석기류에 속하기 때문이다. 전통도예를 위한 도예의 역사를 설명하는 내용에는 도기의 예시작품이 알맞게 제시되어 있다.

이는 시대별 도예의 특징을 각 종류별로 나열하여 역사를 함께 살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반면 현대 공방에서 많이 사용되는 종류의 석기의 이해를 통해 도예에 대한 친근감을 줄 수 있다.

학교 교육에서 교육 과정이 이론적 체계에 대한 것이라면 교과서는 교육 과정과 수업 실천을 연결하는 자료로서 학습 활동의 방향과 범위를 제시하는 중요한 교재

이다. 따라서 도예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지도 방법의 하나로 앞서 교과서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통예술로서 도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수업내용을 선정, 조직해야 한다. 평면 위주의 미술 수업에서 벗어나 도예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미술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부분의 미술교과 내용은 평면위주의 표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도예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미술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미술 교과서 편성으로 볼 때 도예영역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었으며 도예의 이론을 학습하는 단원 역시 미술사를 위한 참고 작품정도로 제시되어 있었다.

둘째, 미술과 수업시수를 주당 두 시간으로 환원하여 적정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하겠다. 미술의 폭넓은 영역을 넓히고 풍부한 상상력과 표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정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수업 시수의 부족으로 도예의 제작과정 전부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이 현 교육현장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충분한 제작과정의 이해를 위해 충분한 수업시수가 필요하다.

셋째, 도예 교육 실시를 위해 필요한 손물레, 도예용구, 도예 보관용 선반 등 학습교구의 확충은 물론 학교 내에 가마를 설치하는 등의 교구의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교사들에게 도예지도에 대한 연수 및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도예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실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자기의 유래가 깊은 지역을 견학하는 등 도예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도예 수업에 대한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수업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박물관, 미술관주변의 공방, 도자요지 및 가마터 등의 견학 기회를 제공하여 도예에 대해 친숙함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언이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완되고 시정 될 때 보다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도자공예 지도와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미술은 인식과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시각 이미지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예술의 한 영역이다. 미술은 삶의 의미와 경험을 살려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의 한 영역이며, 동시에 미술을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언어적 기능과 미술 문화를 통하여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철학적인 기능을 가진다. 단순히 우수한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미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통한 개성과 창조성을 발휘시켜 바람직한 인간성을 계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흙이라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는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면서 창의력을 발전시키고 민족의 정서와 미학이 깃들여져 있는 전통성을 지니며,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게 하였다. 도예란 흙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를 표현하고 창조, 발전시켜 나아가는 미술의 한 영역이며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전됨으로써 인간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는 활력소로 작용을 한다.

도시생활로 쉽게 흙을 만질 기회가 없는 학생들에게 흙을 만질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의 일부인 흙을 만짐으로써 학생들에게 친밀감을 주는 동시에 학생들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면 창의력을 발전시키고 수업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 낼 수도 있고, 나아가 미술교육의 창의력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흙을 이용한 미술 수업은 학생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친근감을 주면서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며 학생들의 생각과 표현으로 각자의 개성에 맞는 작품을 만들면서 자신의 인식과 감정을 표출하고 수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인간에게 도예는 표현 및 감상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개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도 함양시킨다. 점토의 특성을 통해 느낌과 생각을 표출하여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고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립시켜 준다는 점에서 미술교육에서 도예 수업은 반드시 활성화 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도예 교육의 일반적 고찰을 통해 그 중요성을 새롭게 이해하고, 중학교 미술 교과서를 분석하여 도예 교육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학교 미술 교과의 도예 영역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평면 위주의 미술 수업에서 벗어나 도예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미술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미술 교과 내용은 표현 위주의 평면 영역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미술 교과서 편성에서 도예 영역이 전혀 다루어 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도예의 이론을 학습하는 단원 역시 미술사를 위한 참고 작품 정도로 제시되어 있다. 도예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제작과정과 완성된 도예의 이해를 위해서는 깊이 있고 다양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정해진 주제와 영역을 더 넓히고 풍부한 상상력과 표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수업 시수의 부족으로 도예의 제작과정 모두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이 현 교육현장의 모습이다. 교과서 역시 예시작품으로는 완성작이 아닌, 미완성작품이 제시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도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도예 과정에 대한 제시만으로는 충분한 이해를 도와줄 수 없으므로 도예 수업의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제작 과정들을 돌아보고 완성된 작품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성취감을 지니게 하여 자신감과 흥미를 갖도록 해야 하겠다.

이상에서 관찰된 문제점들이 보완되고 시정될 때, 도예 교육은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여, 학교의 도예 교육을 통하여 새롭고 건전한 문화로 미래를 향해 계속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학생들의 문화 의식의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가드클락(GarthClark), 신광석역(1993), 「도자 예술의 새로운 시각」, 미진사
- 강진형, 안빈, 홍종숙(2006) 「이야기가 있는 아름다운 우리 식기」, 교문사
- 글렌C, 넬슨 저, 임무근, 신광석 공역 (1980), 「도자예술」, 미진사
- 김병역(1998), 「도자공예」, 일지사
- 김삼량(2000), 「미술교육계론」, 교육과학사
- 김선아(2004), 「창의성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전문가적 역할」
- 서길용(2000), 「도예 이론과 실기」, 예술문화사
- 서길용(1994), 「도자실기-기초이론과 실제」, 조형사
- 서울교대미술교육연구회 이규선 외(2008),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 송재선(2003), 「우리나라 도자기와 가마터」, 동문선
- 신미영(2008), 「물레성형기법」, 예경
- 안혜영(1999), 「교사를 위한 새로운 공예교육」, 트리몬드
- 유홍준, 윤용이(2001), 「알기 쉬운 한국 도자사」, 학교재
- 윤용이(1997),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학교재
- 이진성(1999), 「도자 공예 개론」, 반도출판사
- 임무근(1998), 「도예의 기초」, 미진사
- 정동훈(1994), 「현대도자예술」, 디자인하우스
- 한봉립, 권오훈 (1984), 「도예기법」, 창미

<국내 학위논문>

- 김자영(2003), “중등 미술교육에서 도예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류형숙(1998), “중등 미술교육에서의 도예 교육”,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이나리(2007), “중등 미술교육에 있어서 조형능력향상을 위한 수업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구(2006), “중등미술교육에서조형활동을 통한 창의력신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세진(2010), “중학교협동학습활성화를 위한 도예수업지도안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현(2008), “중학교 미술교육에서 창의적인 도예교육 지도방안 연구”, 원광대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기타문헌>

- 고승혜 외(2009), 「중학교미술」, 두산동아(주)
- 교육인적자원부(2007), 「미술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
-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Ⅳ」, 대한교과서(주)
- 김용숙, 김재열, 이재만(2009), 「중학교미술」, 일진사
- 김용주 외(2009), 「중학교미술」, (주)지학사
- 김정희 외(2009), 「중학교미술」, 도서출판지학사
- 노영자 외(2009), 「중학교미술」, (주)교학사
- 박은덕 외(2009), 「중학교미술」,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 안혜경 외(2009), 「중학교미술」, (주)미래엔컬처그룹
- 이성도 외(2009), 「중학교미술」, 교학연구사
- 조중현 외(2009), 「중학교미술」, 미진사



Abstract

**Analysis and Study of Art Textbooks in Middle School
- Mainly in the Pottery Area -**

Yoo-Kyoung Jwa

Department of Art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Min-Seok Kang

‘The human capital of imitation type’ took the lead of the development in Korea. But Modern growth engines are turning into ‘creative human capital’ which thinks about new things and made them. The reason is that modern time needs creative and active lives. Accordingly, the goals and methods of education in educational practice are changing to classes in which teachers teach creative expression and integrated thought to students. But because of the education system that focuses on college entrance exams, education brings many problems such as too much competition, student’s individualism, and human alienation rather than it provides whole-person education for creative and active life. As a method of solving these problems, art education gives students creativity, sense of accomplishment, and sense of security emotionally and helps students to build a whole-person character by seeking a new conversational method through free expression activity. And art education has the students of adolescence who are not stable emotionally and socially express their own individual feelings and thoughts, whereby students can express their unconsciousness and implicit

feelings. Through the expression, art education can help the students to have sense of security emotionally and build expressiveness, imaginative power, creativity, critical thinking. And it helps the student to build healthy and mature character.

Especially pottery classes whose main material is earth help students to feel the important of nature and a sense of closeness. It helps students to feel sense of accomplishment, creativity, and sense of security emotionally through the characteristic of earth which easily trans-shapes. Moreover, it plays an important role to help student to form basis of their lives such as sense of beauty, thinking creatively by their own. The pottery classes can help student to increase their thinking ability and improve their creativity through the whole courses of expressing their ideas using earth. And the pottery classes have big educational value which gives students the opportunity to learn our traditional culture and inherit and develop traditional beauty.

Even though pottery classes have educational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like these, art education classes get reduced and art education is handled carelessly because of the lack of place and facilities in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that focuses on college entrance exam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urrent situation of pottery classes and the rate of pottery field in the middle school art text books was examined and analyzed, and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problems were identified and the way of improving it was suggested. And this study aims to suggest right pottery education as follows: the understanding of pottery, contents of pottery, review of literature about the importance was examined. And the contents of pottery education were analyzed based on 9 art textbooks of middle school of 7th educational revision. And then based on the findings, the method of improving pottery education was suggested.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textbooks, I suggest for active and positive pottery classes as follows:

First, we should be aware of the importance of pottery as traditional culture and art and choose gradual and systematic class contents and organize them. Most contents in the art textbooks were composed of flat information. We should have various patterns of art classes including pottery education rather than art classes based on flat information. In some art textbooks, there isn't any pottery education. And in other textbooks, the unit which teaches the pottery just suggests pottery as reference works for art history.

Second, we need to have proper art classes at least two hours in a week in curriculum. We need to have enough time for students to extend their ideas about given subject and to express their imagination and their ability. It is the current education situation that students cannot have experience to learn all the pottery building courses due to the lack of art classes. Therefore enough art class time should be given in order for student to understand the pottery education.

Third, building iron pots and learning apparatus necessary to pottery education are needed, and teachers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have training about pottery filed again.

If the studies like this are conducted consistently, they will give students the opportunity to inherit traditional culture, pottery as art as well as to be aware of folk identity. Through the effective and desirable pottery education students will feel the importance of natural environment, and they will be social members who have healthy and mature character along with having sense of security and internal healing in them.